

국내 축산물 항생제 다량 검출

위반율 일본의 8배·해마다 높아져... 국민 건강 위협

우리나라 소·돼지·닭고기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 검출되는 빈도가 일본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물질이 남아있는 육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항생제에 대한 인체 내 세균의 내성도 커져 국민건강관리 전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검역당국도 검사부위를 근육에서 신장·간 등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위반율 일본의 8배=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 2만2천105마리, 돼지 7만8천412마리, 닭 2만4천407마리 등 모두 14만666마리 가축의 식육에 대해 도축 전후 유해물질 잔

류 여부를 검사한 결과, 0.26%인 364마리에서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엔로플록사신·설파메타진·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다양한 항생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개체수가 많은 닭을 제외하더라도 지난해 도축된 전체 소·돼지가 각각 63만마리, 1천300만마리 등 총 1천363만마리였으므로, 단순 비율상으로는 3만5천여마리가 '항생물질 과다' 상태로 도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위반율은 2005년의 0.25%보다 높아진 것이며, 최근 해마다 위반율이 ▲2000년 0.11% ▲2001년 0.17% ▲2002년 0.14% ▲2003년 0.20%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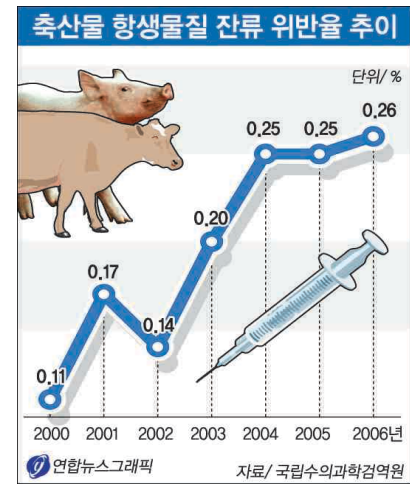
년 0.25% ▲2005년 0.25% ▲2006년 0.26% 등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비교하면 2004년 기준 위반율 0.03%의 8배에 달하고, 같은 해 호주(0.19%)를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미국(0.93%)과 영국(1.12%) 등에 비해서는 아직 낮다.

◇위반농가 67% "휴약기간 안 지켜"=가축에 항생제를 투여해도, 약품 종류별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오줌·땀 등을 통해 체외로 배출된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 즉 휴약기간을 두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도축된 축산물에 유해물질이 남아 이를 먹는 사람에게까지 항생물질이 전달된다.

지난해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축산농가 223곳을 대상으로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가관이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곳이 67%로 가장 많았고, 출하 15~30일 전부터 약제가 없는 '후기사료'를 주는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10%로 뒤를 이었다.

현재 검역원과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은 도축장에서 정상 출하된 가축을 무작위로 골라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검사한다. 간이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사육된 다른 가축의 출하를 제한한다.



이 같은 '모니터링'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이 검출되면 해당농가는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되고, 6개월동안 집중적인 '규제검사'를 통해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규제검사 결과 허용 기준치를 넘은 축산물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조치를 취한다. 지난 11일 현재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돼 규제검사를 통해 축산물 도축, 유통에 제한을 받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94개에 달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민간·공공 공동택지 사업 최소 30% 공공택지 활용

건설교통부는 민간-공공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 민간의 택지확비용 등을 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맞춰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절차 간소화 등도 포함하고 있다.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는 민간이 일정 정도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개정안은 도시지역 1만㎡ 이상, 비도시지역 3만㎡ 이상이 돼야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사업을 민간이 제안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토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하며 공공이 제안할 경우에는 민간이 20% 이상만 확보한 상태에서 가능하다.

개정안은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토지 수용은 공공시행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토지의 최소 30%는 공공택지로 활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해 현금뿐만 아니라 아파트입주권 등으로도 가능하게 했으며 택지개발절차를 2단계로 축소해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일원화하고 실시계획과 공급승인을 일원화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올 여름 폭염... 전력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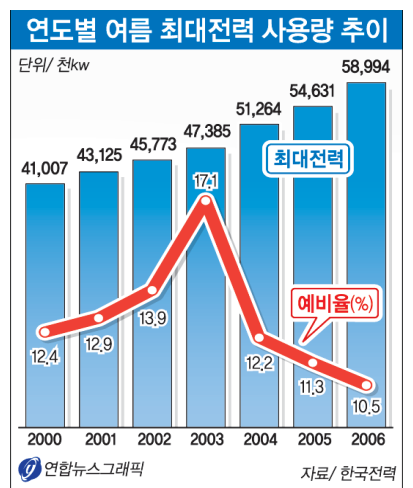
사상 첫 6천만kW 넘어 최고점 기록 경신할 듯

한국전력 전망

늦봄부터 기온상승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해 여름 전력 수요가 사상 처음으로 6천만kW를 넘어 최고점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여름 전력 최대수요점은 6천150만kW선으로 처음으로 6천만kW선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수요규모는 지난해 최고점이자 이전 최고점이었던 5천899만kW보다 4.3% 높아진 것이다.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비전력도 604만kW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력 예비율도 9.8%로 지난해 10.5%보다 떨어지면서 1997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에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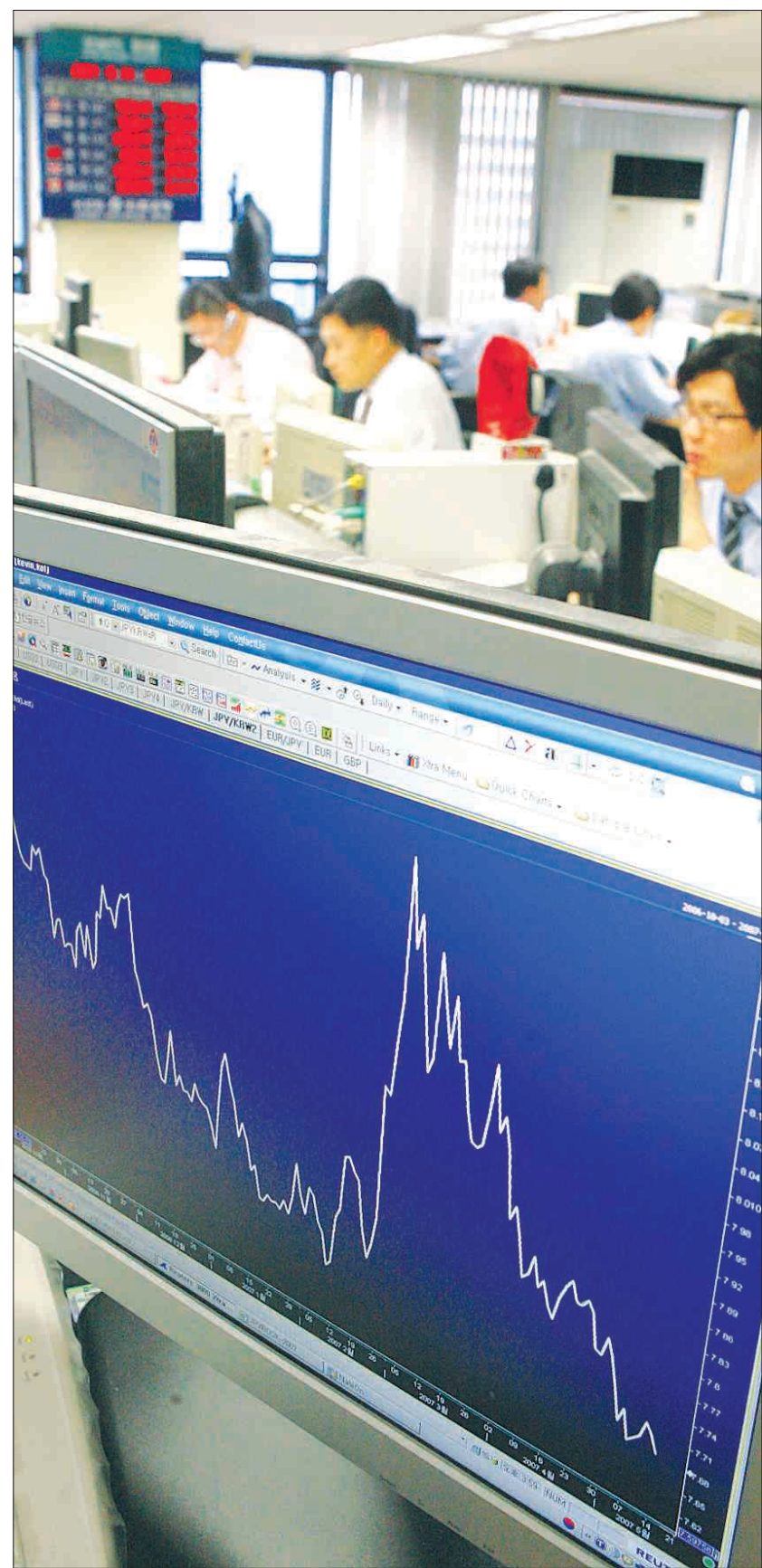
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은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를 구성, 전력수급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편은

우선 전력수요가 피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7월19일~27일과 8월6일~17일 시점에 자율절전이나 여름 휴가철을 이용한 하계 휴가보수 등을 통해 282만kW, 축냉식 냉방설비와 고효율 전력기기 보급 등을 통해 307만kW 등 모두 589만kW 규모의 수요관리를 통해 피크점 도달을 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한전의 요청으로 전력사용을 줄이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비상절전의 방안도 시행할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한전은 "예비전력이 604만kW, 예비율 9.8%로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나 매년 최대 수요점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하락 반전하면서 원·엔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9년7개월래 최저치인 100엔당 768.60원으로 마감된 가운데 14일 서울 외환은행 딜링룸에서 외환딜러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10대 그룹 '소송 공포'

작년 보험료 350억원 지급

올해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전면 시행되는 등 상장사들의 소송 리스크가 커지면서 작년 한해 10대 그룹이 소송에 대비해 지급한 보험료만도 3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10대 그룹의 72개 상장 계열사(3월 결산법인 제외)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6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한 임원배상책임보험 납입액은 총 347억9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조사 대상 10대 그룹의 72개 상장 계열사 가운데 5개사를 제외한 67개사가 작년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93%의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지출한 보험료가 가장 많아 삼성 계열사들은 작년 한해 총 199억원의 보험료를 소송에 대비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LG그룹이 58억6천만원, 현대차그룹이 25억8천만원, SK그룹이 17억8천만원을 각각 임원배상책임보험료로 납부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11억9천500만원, 8억4천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한국 브랜드 가치 너무 낮다

산자부 조사, 고유 브랜드 개발·고급화 시급

품질이 같더라도 100달러 짜리 한국 제품이 일본이나 미국 제품이었다면 149달러, 독일 제품이었다면 155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등 브랜드 측면에서 한국의 가치가 여전히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내용은 14일 산업자원부가 산업정책연구원(IPS)에 의뢰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21개국의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18~70세 성인남녀 2천809명을 대상으로 실시, 집계한 '국가 브랜드 밸류 조사'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가격이 100달러인 한국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때 동일한 독일, 일

본, 미국, 중국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은 얼마일 지 가격을 매겨달라는 설문 항목에서 독일 제품은 155달러로 가장 높았고 일본제품과 미국제품은 각각 148.7달러, 148.6달러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산자부는 "중국(평균 71.2달러)에 비해서는 한국 제품이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떨어진다"며 "고유 브랜드 개발과 고급화 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대륙별로 한국의 연상 이미지로는 아시아와 유럽 지역 소비자들 '역동적이다' '첨단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을 꼽았고 미주지역 소비자들은

같은 품질 제품

- ▶한국산 - 100달러
- ▶일본산 - 149달러
- ▶미국산 - 149달러
- ▶독일산 - 155달러
- ▶중국산 - 71달러

'첨단기술을 갖고 있다'는 이미지와 함께 '한국은 전문성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휴대전화와 정보기술(IT) 및 반도체, 자동차 등 7개 주력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를 받은 결과 가장 높은 평가는 휴대전화로,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외국인들에게 인식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IT 및 반도체, 가전, 철강, 문화, 자동차, 의류산업 순이었다.

/연합뉴스

현대차 '누적판매 3천만대' 돌파한다

연내 달성 전망

현대차가 올해로 '누적판매 3천만대'라는 대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1967년 설립돼 이듬해부터 코티나를 처음 생산·판매하기 시작한 현대차는 지난해까지 총 2천757만7천845대의 자동차를 국내외 해외시장에서 판매했다.

현대차의 올해 판매목표가 국내 63만대, 수출 210만5천대(해외공장 포함) 등 총 273만5천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 판매 40년을 맞는 올해 현대차의 '누적판매 3천만대'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현대차가 올해 판매목표를 달성할 경우 내수판매 1천379만6천508대, 수출 1천286만2천105대, 해외공장 365만4천232대 등 지난 40년간의 누적판매는 3천31만2천845대에 달하게 된다.

'자동차 3천만대'는 차량 1대의 크기를 아반떼의 크기(4.5m)라고 가정하고 일렬로 늘어놓을 경우 지구를 3바퀴 반 가까이 돌 수 있는 대수며, 서울~부산 왕복 215회 가량의 숫자에 해당한다.

앞서 현대차는 판매 첫해인 1968년 533대를 판매한 이후 18년만인 1996년 누적판매 1천만대를 돌파했으며, 1천만대를 달성한 이후 7년만인 2003년 2천만대를 달성했다. 현대차의 누적

판매량이 1천만대씩 증가하는 시간이 18년, 7년, 4년 등으로 점차 줄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1997년 터키공장에서의 해외생산을 시작, 현재 4개 지역에 해외공장을 갖추고 있는 현대차는 올해 해외공장 생산차량 판매대수 '300만대 돌파' 기록도 함께 세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해외공장 생산차량 판매가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3만4천232대에 이른 데다, 이미 지난해말 현재 290만대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달중 '3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코스피 1,605.77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피지수가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 탓인지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연출했다. 14일 코스피지수는 지난주말 대비 2.21포인트(0.14%) 오른 1,605.77로 마감, 종가 기준으로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는 4.14포인트 내린 703.83으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미국 증시의 강세로 투자심리가 호조를 지속하며 9.17포인트(0.57%) 오른 1,612.73으로 출발한 뒤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로 장 초반 1,622.16까지 급등했으나 이후 기관의 차

익매물이 나오며 1,600선이 깨지기도 했다.

개인은 1천18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난 주말에 이어 장세를 이끌었고 외국인은 103억원어치를 순매수했으나 매수 규모가 최근 거래일에 비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기관은 투신과 연기금 등에서 매물이 나오며 1천19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은 1천117억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증시가 강세를 지속하며 투자욕구를 자극했으나 차익 실현 분위기가 강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패스트푸드 트랜스지방 감소

식약청, 5개 업체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패스트푸드의 트랜스지방 함량이 낮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개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파는 튀김류의 트랜스지방 함량을 조사한 결과, 감자튀김은 100g당 평균 1.2g의 트랜스지방이 검출돼, 지난해의 2.0g보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업체별 감자튀김의 트랜스지방 함량(식품 100g 기준)은 버거킹 1.3g, KFC 1.3g, 롯데리아 0.7g, 맥도날드 1.6g, 파파이스 1.0g 등이다. 이 조사는 올 상반기(4월16일~5월1일)에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의 서울 지역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청은 트랜스지방 저감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트랜스지방 함량 실태 조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